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김 은 진**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의 관계를 하나의 통합모형 안에서 살펴보았다.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정하는 한편, 부모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 및 분노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학교 2학년 패널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이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시기동안 부모애착, 자아존중감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분노와 스트레스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부모애착 초기치가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높고 스트레스는 낮았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분노,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였고 시간경과에 따라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분노 초기치가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시간경과에 따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셋째,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간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종단매개효과가 있었으며,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간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유의한 이종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을 논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스트레스,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종단연구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08).

** 원광대학교, ejkim2367@hanmail.net

I. 서 론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처럼 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발달 단계로서, 많은 정서적 갈등과 혼란, 좌절을 경험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성장과 관련된 발달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가정, 학교, 친구, 성적, 외모 등 다양한 수준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통계청(2015)의 수치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61.4%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응답한다. 학교에서의 스트레스(54.4%), 가정에서의 스트레스(34.4%)를 자주 느끼는 것으로 보고 하며, 공부(35.3%), 직업(25.6%), 외모·건강(16.9%) 등에 대해 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는 이를 잘 극복하면 개인에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극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적응 및 반사회적 행동(김기순, 신선순, 2011; 우채영, 정현희, 2013; Liu, 2003; Wills, Sandy, Yaeger, Cleary & Shinar, 2001),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김교현, 전경구, 1997; 최승미, 신민섭, 정진엽, 김중술, 2000; Hankin, Mermelstein & Roesch, 2007)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은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청소년 스트레스 연구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김현순, 2014; 우채영, 정현희, 2013; 홍영수, 2004; Hankin et al., 2007; Liu, 2003), 스트레스 대처(아영아, 정원철, 2010; 이지숙, 2013; Mikulincer, Florian & Weller, 1993; Zhang, Wang, Xia, Liu & Jung, 2012)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청소년 스트레스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효율적인 대처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지만,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변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스트레스원(stressor)을 피하고는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로 취약해지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탐색은 풍부했지만,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도있게 규명하고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하겠다. 또한 스트레스가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개 및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김현순, 2014; 아영아, 정원철, 2010; Wilks, 2008)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연구의 대다수가 역시 독립변인으로서의 스트레스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한적이

다. 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들 관계에 대한 탐색 및 분석이 요청된다.

청소년 스트레스의 수준을 결정짓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들 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부 경로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실증적인 정보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모두 동일한 정도로 지각하지는 않는다는 점,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설진화, 2008; 이유미, 1994; Lazarus & Folkman, 1984)는 점에 주목하고, 개인의 인지적 표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애착(Bowlby, 1973; Holmes, 2005; Bögels & Brechman-Toussaint, 2006)과의 관련성을 통해 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부모와 나누는 정서적 유대는 내적작동모델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내적작동모델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타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사고와 감정을 의미한다(Bowlby, 2014). 양육자와의 정서 경험을 기초로 자기와 타인에 대해 형성한 정신적 표상이다. 따라서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형성된 자기-타인 표상은 자기와 세계에 대한 중요한 신념을 형성하고 이후의 사회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끌며 타인의 행동을 예측,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Bowlby, 1973).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적 표상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불안정 애착관계의 경우 부정적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되어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정병삼, 2010; Kostecky, 2005; Sharaf, Thompson & Walsh, 2009).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애착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지지가 청소년기 자이존중감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장휘숙, 1998; 정병삼, 2010; Bentall et al., 1994; Kostecky, 2005; Sharaf et al., 2009),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외부 자극에 쉽게 위협받고 상처받기 쉬우며(Rosenberg, 1989),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다(최미래, 이인혜, 2003; 최혜란, 2002; 한건환 외, 2004)는 점에서 이의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애착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을 뿐이다. 안정적인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기여하여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를 낮춰주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요청된다.

또한, 불안정한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부적 정서를 유발한다(Bentall et al., 1994; Papini & Roggman, 1992).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한 것으로 지각하기 쉬우며, 불안과 분노를 더 쉽게 느낀다(Bowlby, 2014; Holmes, 2005).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자주 보이는 부모에 의해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밖으로 분노를 더 많이 표출한다(Snyder, Stoolmiller, Wilson & Yamamoto, 2003). 안정적인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기여하지만 불안정한 부모애착은 분노와 같은 부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분노라는 변인을 매개로 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유추된다. Smith(1989)에 의하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자신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해 비우호적인 상황을 만들어 대인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고된다. 마음속의 분노를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마음속에 꺾꽂이 눌러 담은 화는 스트레스가 되어 여러 신체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박상균 외, 2005; 이평숙, 2003), 이들 관계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를 토대로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애착이 그들의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 각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는 한편, 스트레스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하고 자아존중감, 분노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구조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 스트레스의 주요 위험요인, 보호요인을 예측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경로를 파악하게 하여 청소년 스트레스 예방에 선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인과관계를 역동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다년간의 반복측정에 기반한 종단자료를 토대로 하고자 한다. 발달적 맥락을 고려한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동태적 성질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의 종단적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기 부모애착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 연구

그동안 스트레스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연구는 스트레스를 심리적인 갈등이나 긴장을 주는 주위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보며,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연구는 외적인 환경에서 내적인 생리적 현상까지를 포함하는 스트레스 유발자(stressor)를 스트레스로 간주한다(Selye, 1985). 하지만 전자의 경우 환경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능동적인 역할이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후자 또한 동일한 사건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간과한다(조은숙, 2001; 한미현, 1996). 지나치게 기계적인 관점이라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데, Lazarus와 Folkman(1984)에 의해 대표되는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관계적인 관점에서 스트레스에 접근한다. 스트레스를 상호작용 또는 역동적인 작용으로 보며,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어떤 일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은 스트레스 예방 및 대응책을 검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환경적 자극을 해석하고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자원을 해석하는 방법, 즉 개인의 지각과 평가 과정에 관련하는 요소들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설진화, 2008; Lazarus & Folkman, 1984)을 시사해 준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가질수록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고(최미례, 이인

혜, 2003; 한건환 외, 2004), 부모로부터 무관심이나 거부를 당해 부정적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인다(장휘숙, 2000)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청소년 스트레스 연구는 스트레스가 미치는 유해한 영향(김현순, 2014; 우채영, 정현희, 2013; 홍영수, 2004), 스트레스 대처(아영아, 정원철, 2010; 이지숙, 2013)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 스트레스 발생 요인에 대한 탐색은 드문 실정이다.

2.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뜻하는 용어로서(Bowlby, 2014), 부모애착은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신뢰감 형성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에 따라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되는데, 초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며 이후 경험하게 될 세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표상한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이 가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자신과 타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Bowlby, 1973; Bögels & Brechman-Toussaint, 2006). 즉 부모애착을 통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발달 과정에서 세상을 보는 눈의 역할을 하여, 자아개념의 형성 및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Rosenberg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반영된 평가, 사회적 비교, 자아귀인의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된다.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영향을 받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타인이 보는 대로 자신을 보게 되며, 자신이 속한 범주와 다른 사람의 사회적 범주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관찰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Rosenberg, 1989).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타인과의 지속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설명하는 것으로, 특히 부모-자녀관계가 모든 인간관계 중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부모 변인이 자아존중감 형성 및 발달에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유의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적 표상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게 되므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지지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Kostecky, 2005; Sharaf et al., 2009)고 보고된다. 즉 자신이 사랑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타인이나 세상 역시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 반면 안정적이지 못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 타인을 믿지 않고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장휘숙, 1998).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정적 자기개념을 형성시키고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발생하게 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한다(정병삼, 2010; Bental et al., 1994; Kostecky, 2005)고 보고되고 있다.

3. 부모애착과 스트레스에서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매개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부정적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안정 애착 청소년에 비하여 더 많은 부적 정서를 느끼게 한다(Bental et al., 1994; Papini & Roggman, 1992). 거부민감성이 증가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한 것으로 지각하기 쉬우며, 불안과 분노를 더 쉽게 느껴 과잉 반응한다(Holmes, 2005). 아동 대상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자주 보이는 부모에 의해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밖으로 분노표출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된다(Snyder et al., 2003). 청소년기 부모애착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에게 따뜻하고 수용적인 양육을 받아 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부모를 안전기지로 인식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적응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하지만(Kobak & Sceery, 1988; Mikulincer et al., 1993), 부모로부터 무관심이나 거부를 당한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인다(장휘숙, 2000).

부정적 내적작동모델은 분노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이 매개변인의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불안정 애착은 청소년들로 하

여금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발생하게 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는데(정병삼, 2010; Bentall et al., 1994; Kostecky, 2005),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도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분노를 쉽게 표현하고 자기의 욕구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타인이나 세상에 불만을 표출하여 분노감이 높을 수 있다(Salmivalli, 2001).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외부 자극에 쉽게 위협받고 상처입기 쉬우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안, 우울, 적대감, 공격성, 스트레스와 관련이 크고(Rosenberg, 1989) 적응상 어려움이 있다(김기순, 신선순, 2011).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가 높아지며(최미례, 이인혜, 2003; 한건환 외, 2004), 성인의 반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Donnellan et al., 2005).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분노(김가희, 2013; 이미리, 2009), 스트레스(최혜란, 2002)의 지각 정도를 낮춰주는 완충제 역할을 함이 입증되고 있다. 즉, 부모 애착과 스트레스 간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매개 가능성이 시사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들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가 드물며, 청소년의 부적 정서 중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에 치중하여 자아존중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사이에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매개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모형설정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설은 청소년기 부모애착이 그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정하는 한편, 부모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 및 분노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이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지지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크게 기여하며(Kostecky, 2005; Sharaf et al., 2009) 불안정 애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정적 자기개념을 형성시키고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발생시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한다(정병삼, 2010; Kostecky, 2005)는 선행연구,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한 것으로 지각하기 쉬우며 불안과 분노를 더 쉽게 느끼고(Holmes, 2005),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분

노표출을 더 많이 한다(Snyder et al., 2003)는 선행연구, 부모에게 따뜻하고 수용적인 양육을 받아 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부모를 안전기지로 인식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적응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지만(Kobak & Sceery, 1988; Mikulincer et al., 1993) 부모로부터 무관심이나 거부를 당한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인다(장휘숙, 2000)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였다.

또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외부 자극에 쉽게 위협받고 상처입기 쉬우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적 정서와 관련이 크고(Rosenberg, 1989),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분노(김가희, 2013), 스트레스(최혜란, 2002)의 지각 정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분노 수준이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박상군 외, 2005; 이평숙, 2003; Smith, 1989)는 연구 결과도 참고하였다.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를 제외하고 각각의 경로에 대한 연구들이 드물고 이를 종단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없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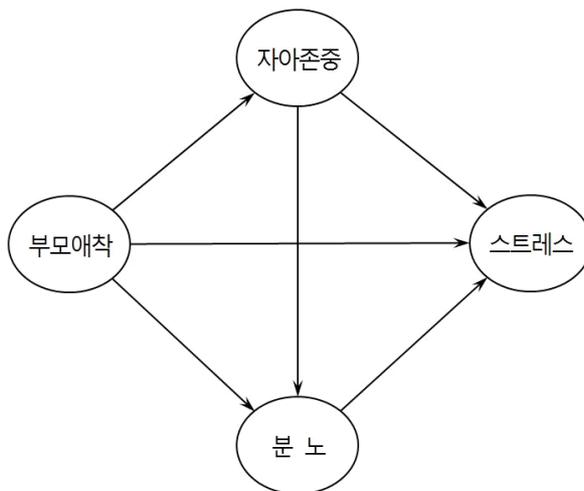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이하 KYPS) 중학교 2학년 패널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2 청소년 3,449명(남 1,725명, 여 1,724명)을 고3의 시기까지 추적 조사한 종단 자료이다.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는다고 알려진 중·후기 청소년 표본이라는 점(이미리, 조성연, 길은배, 김민, 2014)과 전국의 중·후기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라는 점에서(이경상, 조혜영, 2004),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표 1과 같다. KYPS에서 각각 부모애착, 자이존중감, 분노, 스트레스로 정의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표 1
측정도구

변 인 (문항수)	문항 예	신뢰도 (α)				
		1차	2차	3차	4차	5차
부모애착 (6)	-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노력하는 편이다. -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86	.88	.88	.89	.90
자이존중감 (6)	-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3	.74	.75	.76	.76
분노 (4)	-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72	.76	.75	.77	.78
스트레스 (17)	-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88	.91	.89	.89	.90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쳤다. 첫째,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개별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의 종단적 구조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관계 구조 속에서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이 이상의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자료의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각 변인의 종단적 변화

먼저 각 변인들의 결측비율과 정규성 가정을 검토하였다. 결측비율 검토 결과, 각 변인들에서 발생한 결측비율은 최대 14.2%로 모수 추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 .06 ~ .61, 첨도는 절대값 .01 ~ .47의 범위를 보여, 본 연구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시점에서 변인 평균 변화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변인의 시점별 평균 및 표준편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부모애착	3.34(.78)	3.42(.76)	3.44(.73)	3.46(.75)	3.51(.77)
자아존중감	3.24(.59)	3.34(.62)	3.37(.59)	3.38(.60)	3.46(.61)
분노	2.39(.78)	2.44(.81)	2.35(.76)	2.32(.78)	2.27(.78)
스트레스	2.70(.65)	2.68(.67)	2.68(.61)	2.67(.61)	2.55(.65)

다음으로 각 변인별 성장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각 변인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적합도 비교

변인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부모애착	무변화	390.84(13)	.925	.935	.092
	선형변화	77.47(10)	.983	.988	.044
자이존중감	무변화	485.99(13)	.833	.855	.103
	선형변화	81.68(10)	.967	.978	.046
분노	무변화	256.54(13)	.922	.932	.074
	선형변화	64.59(10)	.977	.985	.040
스트레스	무변화	476.12(13)	.876	.893	.102
	선형변화	152.80(10)	.950	.967	.064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모든 변인들에서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형변화모형을 바탕으로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 분산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각 변인의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공분산
부모애착	3.355***	.349***	.038***	.014***	-.024***
자이존중감	3.256***	.148***	.050***	.007***	-.008***
분노	2.423***	.294***	-.034***	.013***	-.022***
스트레스	2.718***	.238***	-.030***	.013***	-.027***

*** $p < .001$

표 4와 같이, 각 변인들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 분산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년 동안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점차 증가하고, 분노와 스트레스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의한 변화율 분산값을 통해 각 변인들에서 개인내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초기치와 변화율의 유의한 공분산 값을 통해 초기치와 변화율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각 변인들의 잠재성장모형을 바탕으로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df) = 1689.82(160)$, TLI = .905, CFI = .928, RMSEA = .053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양호함을 보여주었다. 각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부모애착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308***	.017	.473***
부모애착 초기값 → 자아존중감 변화율	.000	.006	.002
부모애착 초기값 → 스트레스 초기값	-.209***	.021	-.256***
부모애착 초기값 → 스트레스 변화율	.030***	.008	.158***
부모애착 초기값 → 분노 초기값	-.006	.028	-.007
부모애착 초기값 → 분노 변화율	-.020*	.010	-.099*
부모애착 변화율 → 자아존중감 변화율	.423***	.033	.635***
부모애착 변화율 → 스트레스 변화율	-.256***	.065	-.290***
부모애착 변화율 → 분노 변화율	.138	.092	.141
자아존중감 초기값 → 분노 초기값	-.453***	.045	-.318***
자아존중감 초기값 → 분노 변화율	.006	.017	.019
자아존중감 초기값 → 스트레스 초기값	-.341***	.036	-.272***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자아존중감 초기값 → 스트레스 변화율	.016	.013	.056
자아존중감 변화율 → 분노 변화율	-.951***	.168	-.650***
자아존중감 변화율 → 스트레스 변화율	-.384**	.146	-.290**
분노 초기값 → 스트레스 초기값	.393***	.022	.447***
분노 초기값 → 스트레스 변화율	-.037***	.008	-.183***
분노 변화율 → 스트레스 변화율	.373***	.070	.413***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애착 초기값은 자아존중감 초기값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beta = .47, p < .001$), 부모애착 초기값이 자아존중감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부모애착 변화율은 자아존중감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64, p < .001$). 이는 1차 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이 좋을수록 같은 시기에 측정한 자아존중감이 높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애착이 크게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도 크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모애착이 분노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애착 초기값은 분노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 스트레스 초기값에는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6, p < .001$) 분노 변화율에는 $-.10(p < .05)$ 의 영향력을, 스트레스 변화율에는 $.16(p < .001)$ 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1차 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이 좋을수록 같은 시기에 스트레스가 낮음을 보여주며, 부모애착 초기값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에 부모애착이 좋았던 학생일수록 이러한 관계가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쳐 시간이 흐를수록 스트레스를 더 덜 받게 만들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애착 초기값이 높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 변화율이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이미 분노 초기치도 낮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모애착 변화율은 분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트레스 변화율에는 유의한 부정적 영향($\beta = -.29, p < .001$)을 행사하였다. 부모애착 변화율이 커질수록 스트레스 변화율이 작아진다는 것으로, 부모애착 증가율이 증가할 때 스트레스 감소율은 둔화됨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분노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초기값은 분노 초기값에 유의한 부적 영향($\beta = -.32, p < .001$)을, 스트레스 초기값에 유의한 부적 영향($\beta = -.27, p < .001$)을 준다. 자아존중감 초기값이 분노와 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없었으며, 자아존중감 변화율은 분노 변화율에 $-.65(p < .001)$ 의 영향력을, 스트레스 변화율에 $-.29(p < .01)$ 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1차 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같은 시기에 분노와 스트레스는 낮게 지각함을 나타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 증가율이 증가할 때 분노와 스트레스 감소율은 느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분노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분노 초기값은 스트레스 초기값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45, p < .001$)을 주며, 분노 초기값이 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8, p < .001$). 1차 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의 분노가 높을수록 같은 시기에 스트레스도 높게 지각함을 보여주며, 분노 초기값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느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분노 초기치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수준도 높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라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분노 변화율이 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beta = .41, p < .001$), 이는 분노 감소율이 커질수록 스트레스 감소율도 커짐을 나타낸다.

3. 매개효과 검증

유의한 경로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Z
부모애착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 스트레스 초기값	-8.40 ^{***}
부모애착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 분노 초기값	-8.80 ^{***}
부모애착 초기값 → 분노 변화율 → 스트레스 변화율	-1.87

경로	Z
부모애착 변화율 → 자이존중감 변화율 → 스트레스 변화율	-2.58**
부모애착 변화율 → 자이존중감 변화율 → 분노 변화율	-5.18***
부모애착 초기값 → 자이존중감 초기값 → 분노 초기값 → 스트레스 초기값	-7.92***
부모애착 초기값 → 자이존중감 초기값 → 분노 초기값 → 스트레스 변화율	4.09***

** $p < .01$, *** $p < .001$

자이존중감 초기값은 부모애착 초기값과 스트레스 초기값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며($Z = -8.40, p < .001$), 부모애착 초기값과 분노 초기값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Z = -8.80, p < .001$). 즉 부모애착 초기값이 높은 청소년은 같은 시기 자이존중감 초기값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높은 자이존중감이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낮춰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부모애착 초기값이 높은 청소년은 같은 시기 자이존중감 초기값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높은 자이존중감이 분노를 유의하게 낮춰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는 변화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자이존중감 변화율은 부모애착 변화율과 스트레스 변화율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며($Z = -2.58, p < .01$), 부모애착 변화율과 분노 변화율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Z = -5.18, p < .001$). 즉 시간 경과에 따라 부모애착이 더 크게 증가할수록 자이존중감도 더 크게 증가해 스트레스를 더 크게 감소시켜줌을 보여준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부모애착이 더 크게 증가할수록 자이존중감도 더 크게 증가해 분노를 더 크게 감소시켜줌을 보여준다.

이중매개효과도 나타났는데, 부모애착 초기값과 스트레스 초기값 사이에서 자이존중감 초기값과 분노 초기값이 유의미한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낸다($Z = -7.92, p < .001$). 높은 부모애착 초기값은 같은 시기 자이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자이존중감은 분노를 유의하게 낮춰주며, 낮은 분노는 스트레스 수준에도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애착 초기치가 높은 사람은 같은 시기에 높은 자이존중감, 낮은 분노,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애착 초기값과 스트레스 변화율 사이에서 자이존중감 초기값과 분노 초기값은 유의미한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낸다($Z = 4.09, p < .001$). 1차 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의 부모애착이 같은 시

기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분노를 유의하게 낮춰주며, 낮은 분노는 스트레스 수준에도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주는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이후 스트레스 변화율의 감소 폭에도 영향을 줄을 나타낸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스트레스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하고 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와의 관계를 하나의 통합모형 안에서 살펴보았다. KYPs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년 동안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분노와 스트레스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부모애착 초기치가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높고 스트레스는 낮았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분노,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였고 시간경과에 따라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분노 초기치가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시간경과에 따라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셋째,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간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종단매개효과가 있었으며,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간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유의한 이중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과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목한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는 모두 그 변화 양상에 있어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 분산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년 동안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달 단계에 따라 개인마다 지각하는 수준이 유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내적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냄으로써,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가 주변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까운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설명하는 애착이론(Bowlby, 2014)은 물론이거니와, 유의미한 타인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된다는 자아존중감 이론(Rosenberg, 1989), 관계적 측면에서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분노가 주로 대인관계에서 비롯되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자주 경험되는 정서(이규미, 1999)라는 점에서, 이들 변인들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한층 더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점차 증가하고 분노와 스트레스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호요인은 점차 증가하고 위협요인은 점차 감소한다는 점에서 다행한 결과이나, 시각을 달리해서 본다면 이는 중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분노나 스트레스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조절되지 못할 때 학업수행의 문제나 내현적, 외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미리, 2009), 중학생 시기의 분노 및 스트레스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대학입시에 근접해 있는 고등학생들의 정서관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을 수 있는 중학생들의 분노, 스트레스 관리에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과 그들의 교육현장에 사회적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이 아울러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기 부모애착은 그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이 좋을수록 같은 시기에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며, 시간 경과에 따라 부모애착이 더 크게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는 더 크게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부모애착은 매개변인을 통해 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변인임이 입증된다. 안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획득한 안전기지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며(Mikulincer et al., 1993) 안정된 애착이 개인을 스트레스에 견디낼 수 있도록 한다(Kobak & Sceery, 1988)는 연구들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청소년기 부모애착은 그들의 스트레스 경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Bowlby(1973)에 의하면 양육자에 대한 애착경험은 내면화되며, 내적으로 표상된 애착 작동모델은 개인이 인지, 정서, 행동을 조직하는데 영향을 미쳐 괴로움에 대한 반응을 인도한다고 강조되는데, 본 연구 결과는 그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부모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은 청소년 스트레스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불안정 애착은 스트레스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하겠다. 학부모들과 청소년 가정에서는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부모와 허물없는 대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유연하게 넘길 수 있지만, 부모와 의사소통이 적고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스트레스를 더 크게 지각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김교현, 전경구, 1997; 최승미 외, 2000)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기순, 신선순, 2011; 우채영, 정현희, 2013; Liu, 2003; Wills et al., 2001)는 점에서 청소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데, 부모-자녀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부모가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임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애착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종단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 초기값은 같은 시기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시간 흐름에 따라 부모애착이 더 크게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도 더 크게 증가해 스트레스를 더 크게 감소시켜줌이 확인되었다. 부모애착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달라지며(윤명숙, 최정민, 2011; 정병삼, 2010; Foster, Kernis & Goldman, 2007; Hart & Goldenberg, 2005),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박복순 외, 2015; 오선영, 2013; 이혜순, 2013)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애착을 통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이 세상을 보는 눈의 역할을 하여 자아개념의 형성 및 인지도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Bowlby, 1973; Bögels & Brechman-Toussaint, 2006)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본 연구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에 주목하고 부모애착 및 자아존중감을 스트레스의 중요 선행변인으로 탐색하고자 했던 가설을 지지해 준다. 바로 위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부모애착이 따뜻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직접적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정적인 부모애착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이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이끌어 스트레스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청소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아울러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도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설사 안정적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므로, 애착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아울러 진행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이 함의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형제 또는 학생들 간 상호비교를 지양하며, 결과보다는 과정 지향적인 평가방식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 필요가 있다.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들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청소년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모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은 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분노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달라지며(윤명숙, 최정민, 2011; 정병삼, 2010; Foster et al., 2007; Hart & Goldenberg, 2005), 자아존중감은 분노(김가희, 2013; 이미리, 2009),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박복순 외, 2015; 오선영, 2013), 분노는 스트레스(박상균 외, 2005; 이평숙, 2003)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사이에서 분노만으로는 유의한 매개 경로를 설명할 수 없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거나 자아존중감과 분노라는 이중매개로써 스트레스 원인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주목된다.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자주 보이는 부모에 의해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면,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밖으로 분노를 더 표출하며(Snyder et al., 2003) 부적 정서가 유발된다(Bentall et al., 1994; Papini & Roggman, 1992)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분노의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불안정 부모애착이 분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마음의 근육이 되어줄 자아존중감의 부재로 인해 분노가 더 쉽게 유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분노는 스트레스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구체적 경로를 보여줌으로써, 청소년 스트레스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애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과 함께,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요긴하게 기능할 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노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므로, 이들의 분노조절을 돕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화가 났을 때 진정할 수 있는 심호흡이나 명상 등을 지도하고, 자신의 분노발생 패턴에 대

해 신체적, 행동적 측면에서 탐색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청소년의 감각과 감정은 일찍 발달하는데 비해 이를 조절하는 전전두엽은 미성숙해서 성인보다 충동을 잘 이기지 못하고(신명희 외, 2013),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Anderson & Bushman, 2002), 만성 스트레스 예방 차원에서도 청소년 분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 연구는 주로 횡단자료에 기반한 독립변인으로서의 스트레스 연구에 치중되어온 면이 크다. 스트레스로 인해 취약해지는 여러 문제와 그 지원방안에 대한 탐색은 풍부했지만, 역동적인 시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심도있게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변인들에 대해 본 연구는 유용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해 준다.

둘째, 본 연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 각각의 관계를 종합하여 하나의 통합모형으로 이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 스트레스에 보호 또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들 관계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청소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해 준다. 청소년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를 시사받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스트레스 예방 대응책을 검토하는데 유용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특히 이러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는 부모애착과의 관련성을 가정하고 이를 탐색함으로써, 개인의 지각과 평가 과정에 관련하는 요소들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패널자료는 ‘부모님과 나는~’의 형태로 부모애착 문항이 구성되었다. 이는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애착을 살펴보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부모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교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애착 정도를 묻는 문항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이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 분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 자아존중감을 완전매개로 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세부경로를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부모애착이 분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들이 충분하다 할 수 없으므로 추후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이라는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고려하여 관계 구조를 탐색한다면 좀 더 풍부한 세부 경로와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가희 (2013). 초기 청소년 부모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분노에 관한 종단연구: 잠재성장모형 적용. **청소년복지연구**, 15(2), 295-317.
- 김교현, 전점구 (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김기순, 신선순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9(3), 94-111.
- 김현순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3), 409-437.
- 박복순, 조하나, 박병준 (2015).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 및 취업스트레스의 연관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2), 1109-1117.
- 박상균, 이후경, 윤성철, 안현주, 김선재, 방양원, 장혜진 (2005). 훈방대상 비행청소년의 분노, 분노대처 및 스트레스 반응.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6(2), 261-269.
- 설진화 (2008). **정신건강론**. 서울: 학현사.
-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 노원경 외 (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아영아, 정원철 (2010). 청소년의 학업 및 가족갈등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대처능력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57-277.
- 오선영 (2013). 청소년의 체형인식도,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 82-89.
- 우채영, 정현희 (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0(6), 147-168.
- 윤명숙, 최정민 (2011).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안녕감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2), 55-78.
- 이경상, 조혜영 (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규미 (1999).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리 (2009). 청소년기 분노정서 경험의 발달과 자아존중감, 부모, 친구, 학업, 여가

- 맥락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2), 127-143.
- 이미리, 조성연, 길은배, 김민 (2014). **청소년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유미 (1994). **청소년 스트레스와 인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숙 (2013).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유형별 대처방법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3), 321-344.
- 이평숙 (2003). 중년여성의 분노, 지각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3(6), 856-864.
- 이혜순 (2013). 청소년의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21(2), 121-129.
- 장휘숙 (1998).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기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10-121.
- 장휘숙 (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성 발달: 대처방식의 중재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41-157.
- 정병삼 (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조은숙 (2001). **현대인과 정신건강**. 서울: 법문사
- 최미래,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승미, 신민섭, 정진엽, 김중술 (2000). 만성적인 신체질환 및 장애를 지닌 아동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양상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2), 252-261.
- 최혜란 (2002).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5). **2015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방식 및 문제행동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1(3), 385-402.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영향. **한국 청소년연구**, 15(2), 153-182.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27-51.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3), 331-341.
- Bögels, S. M., & Brechman-Toussaint, M. L. (2006). Family issues in child Anxiety: attachment, family functioning, parental rearing and belief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834-856.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2014). **존 볼비의 안전기지: 애착이론의 임상적 적용** (김수임, 강예리, 강민철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8 출판)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 Foster, J. D., Kernis, M. H., & Goldman, B. M. (2007). Liking adult attachment to self-esteem stability. *Self and Identity*, 8(1), 64-73.
- Hankin, B. L., Mermelstein, R., & Roesch, L. (2007).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Stress exposure and reactivity models. *Child Development*, 78(1), 279-295.
- Hart, J., Shaver, P. R., & Goldenberg, J. L. (2005). Attachment, self-esteem, worldviews, and terror management: Evidence for a tripartite security syst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999-1013.
- Holmes, J. (2005). **존 볼비와 애착이론** (이경숙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3 출판)
- Kobak, R. R., & Se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stelecky, K. (2005). Paternal attachment, academic achievement, life events and their relationship to alcohol and drug us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8(5), 665-676.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ion. In W. D. Gentry (Ed.),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pp.285-325). New York: Guilford.
- Liu, X. (2003). Cigarette smoking, life stress,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3(3), 189-192.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17-826.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258-275.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Conn: Wesleyan University Press.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4), 375-393.
- Selye, H. (1985).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stress concept. In A. Moant, & R. S. Lazarus (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pp.7-29,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araf, Y. A., Thompson, E. A., & Walsh, E. (2009). Protective effects of self-esteem and family support on suicide risk behaviors among at-risk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s Psychiatric Nursing*, 22(3), 160-168.
- Smith, T. W. (1989). Interactions, transactions, and the Type A pattern: Additional avenues in the search for coronary-prone behavior. In A. W. Siegman, & T. M. Dembroski (Eds.), *In search of coronary-prone behavior*(pp.91-116). Hillsdale, EJ: Erlbaum.

- Snyder, J., Stoolmiller, M., Wilson, M., & Yamamoto, M. (2003). Child anger regulation, parental responses to children's anger displays, and early child anti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12*, 350-360.
- Wilks, S. E. (2008). Resilience amid academic stress: The Moderating impact of social support among social work students. *Advances in Social Work, 9*(2), 1-20.
- Wills, T. A., Sandy, J. M., Yaeger, A. M., Cleary, S. D., & Shinar, O. (2001). Coping dimensions, life stres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A latent growth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309-323.
- Zhang, X., Wang, H., Xia, Y., Liu, X., & Jung, E. (2012). Stress, coping and suicide ideation in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35*, 683-690.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self-esteem, anger and stress

Kim, Eun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which may exist among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self-esteem, anger, and stress in a single integrated model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was done in order to verify factors of the effect on adolescent stre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and self-esteem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whereas anger and stress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from the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to the third year of high school. Second, students who had a high intercept of parent attachment had high self-esteem simultaneously and low stress and these patterns continued over time. Students who had a high intercept of self-esteem perceived anger and stress weakly at the same time and this pattern continued over time while students who had a high intercept of anger perceived stress strongly at the same time and this pattern continued over time. Third, a significant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n self-esteem was found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stress while a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 on self-esteem was found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stress. Based on the above resul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s stress, parent attachment, self-esteem, anger

투고일: 2015. 9. 14, 심사일: 2015. 11. 2, 심사완료일: 2015. 11. 9

* Wonkwang University